

전주 전통한지에 기록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 전주시민에게 공개

전주 전통한지에 기록된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 다섯 편이 전주시민들에게 공개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오는 2월 28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주시청 로비에서 전주한지로 복원된 완판본 한글소설 5종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열여춘향수절가 △심청전 △적벽가·화용도(언문) △토벌가 등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전라감영에서 간행된 완판본 판소리에 한글소설 4종과 최초 완판본 목판 한글소설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별월봉기'를 포함한 다섯 작품이 전주한지로 제작돼 선을 보인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조선왕조실록 복원과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주 전통한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 1억원을 투입해 전주 완판본 서적 복원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에는 전주 전통한지 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전주 전통한지 수매량은 5000여장에 이른다.

특히 과거 완판본 서적에 사용된 한지물성을 분석해 이 기준을 완판본 서적 복본용 한지 품질규격으로 제시하고, 엄격한



한지산업지원센터, 내달 28일까지 한달간 전주시청서 전시 열여춘향수절가·심청전·토벌가·별월봉기 등 다섯 작품

품질관리와 분석결과를 통해 사업에 사용된 한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전주 완판본 서적 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판소리계 한글소설 5종을 선택한 이유는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글꼴에서도

일반 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전주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전주지역의 우수한 기록·출판문화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전시회가 전주의 역사·문화

를 재조명하고, 출판문화도시 전주한지의 우수성과 복원 기술력을 공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는 조선 중·후기 서울, 대구와 함께 출판문화 중심지로 손꼽혔으며, 한지의 주산지이자 판소리 중심지이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0여년의 세월을 지켜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을 복원하고, 이를 전시·홍보 등 문화사업의 아이টে็ม으로 활용해 한지산업의 중심지인 전주의 기록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조선왕조실록 복원화 사업에 이어 전주 완판본 서적 복원화 사업을 통해 복원 및 복본 제작의 기술이 인쇄 산업과 접목됨으로써 통한지의 대중화에 점차 다가서고 있다"며 "전통한지의 전통계승과 보존·발전을 통해 전주에 대한민국의 문화수도이자 글로벌 문화도시임을 각인시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복원된 전주 완판본 판소리계 한글소설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한지문화가 출판 인쇄문화와 접목돼 세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상반기 7개 과정 운영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7개 과정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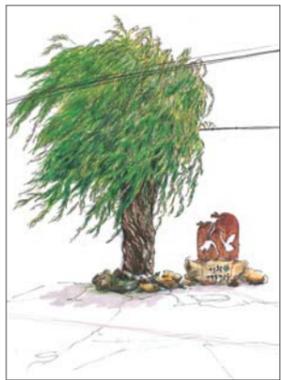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대책이다. 관련분야 실무능력 뿐 아니라 직무소양교육도 병행하는 교육훈련은 현장수요에 맞춘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한다.

2017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은 △탄소산업분야제조인력 △전기·전자부품품질검사원 △단체급식조리사 △법무사무원 △아파트관리사무소행정사무원 △특허전문인력(지식재산전문가) △제과생산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총 7개 과정을 개설한다.

이와 관련 센터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해 일자리 유관기관 및 기업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협력망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기업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기업 및 구인예정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현장 면접 및 즉시 채용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 과정 당 20명을 선발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은 현재 모집 중이다.

교육비는 자비부담금 10만원을 선입금 하지만 환급 가능하다. 환급 교육 수료 시 5만원을 1차 환급하고, 취업 시 5만원을 2차로 추가 환급한다.

신수미 센터장은 "이번 직업교육훈련은 그동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전문 자격조건을 다시 갖춰 양질의 일자리로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알찬 교육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행정사무원, 법무사무원,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은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직종임에 따라 많은 취업희망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63-254-3610. /정해은 기자



서학동에 멈추고 물들다

서학아트스페이스, 정해운 초대전

서학아트스페이스(관장 김성균)는 정해운의 '서학동에 멈추었고, 물들었다'를 2017년 기획초대전을 연다.

같은 여행을 즐겨한다는 정해운 작가는 '회색 짙은 바닥에 햇살이 한껏 쏟아지던 4월 어느 날, 서학동예술인마을 토요마켓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그곳엔 큰 노랫소리 없이 사람들의 소리만 북적였다.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소리·사람들의 대화 소리·문이 열릴 때면 딸랑하는 종소리·강아지 소리·자전거 페달 밟는 소리가 반가운 곳'이었다며 처음 서학동에 걸음이 닿던 날의 느낌을 이 같이 스케치한다.

정 작가는 여행의 기억과 풍경을 사진으로 남길 법도 하지만 구태여 종이에 담아내는데 이는 "사진으로 남기면 스치듯 지나가버려 기억이 짧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종이 위에 선을 긋고, 색을 물들이며 그 곳의 이야기와 소리를 오랜 시간 담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유에서란다. /정해은 기자



작가는 서학동을 찾을 때면 그 언저리를 맴돌며 그날의 기억과 소리를 그렸다. 그림 속 배경은 어느 동네와 다를 바 없지만 작가의 따뜻한 정서가 가미돼 정겹고 포근하게 다가온다.

오는 2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선 지난해 서학동의 봄·여름·가을·겨울이 담긴 3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회화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작업을 해오다가 2014년부터 전북여성미술인협회를 통해 전주에서 본격 활동을 보였다. /정해은 기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극단 '하늘' 창단 20주년 공연

뮤직씨어터 슈바빙 오페라 '나비부인' 등 19건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찬)은 올해 3억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재단은 국악·연극·무용·다원공연 4개 분야에서 총 48건(국악 17, 연극 9, 무용 9, 음악 10, 다원 3)의 지원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19건(국악 6, 연극 3, 무용 4, 음악 4, 다원 2)의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은 우수공연 작품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작품을 제작 및 공연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에 지원한다.

재단은 국악부문 △남원여성국극보존회·여성국극 '내춘향전'(1,500만원) △문화예술공작소·판소리극 '화용도'(2,000만원)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아! 토리 주머니'(1,500만원) △애기보따리·소리극 '달뿔개'(2,500만원) △온고요 소리청·창작 창극 '흥부전'(2,500만원) △제이유창극발전소·판소리극 '모돌전'(2,500만원) 연극부문 △극단 하늘·극단 하늘 창단 20주년 특별기념 공연(2,600만원) △푸른 숲·지역미래 희망뮤지컬 '푸른고래 슈우 날다'(1,600만원) △황토레퍼토리컴퍼니·황토레퍼토리컴퍼니 창단 35주년 기념공연 및 2017 명품고전 발굴사업(2,000만원) 무용부문 △산조전통무용단·'어머니, 나의 노래'(1,300만원) △예진예술인·동화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1,500만원) △최재희퍼포밍아트그룹·최재희퍼포밍아트그룹 '시소와 공기나무'(1,500만원) △춤, 전라북도·아리우니다 '금첨무'(2,500만원) 음악부문 △가온스토리클래식·음악극 빈 아파트에 사는 빈 악파들(1,000만원) △뮤직씨어터슈바빙·오페라 '나비부인'(3,000만원) △소리문화창작소 신·김수로와 함께 떠나는 '세계뮤지컬 페스티벌'(2,500만원) △전주오페라단·음악시트콤 오페라 '프로포즈'(2,000만원), 다원부문 △소리지존퓨전타악퍼포먼스·3D 미디어 퓨전타악콘서트 '브릴랴нте(brilliant)'(1,000만원)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1,000만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고준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협력관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2017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일정기간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공연일정과 공연장소를 감안해 단체 및 작품을 선정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8개 단체가 축소된 19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일부 공연의 경우, 새로운 작품이 아닌 기존 작품을 활용한 공연이 많아 아쉬웠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통한지로 표창장 만든다

전주시, 연간 1만여매 발급

전주시가 전통한지 소비촉진을 위해 표창장과 임용장 등을 발급 시 전통한지를 사용키로 했다.

전주시는 전통한지 소비촉진과 전주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발급하는 표창장과 임용장 등에 전통한지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간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표창장과 임용장 등의 용지 사용량이 연간 5000여매에 달한다. 또, 각종 인·허가증과 면허증 용지 5000여매 등을 포함하면 연간 증서 용지 사용량은 1만여 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시는 기존에 사용했던 기계한지 및 인쇄용지 대신 전통한지(수북한지)로 변경, 전통한지 공공소비에 앞장서기로 했다.

우선, 시는 조선왕조실록 복원사업 이후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보관중인 잔여분 전통한지 1000여매를 활용해 A4용지 규격으로 제작, 표창장 및 임용장 용지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통한지 사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쇄성을 향상시킨 호포장용 전통한지를 전주 한지산업 육성 기본계획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시는 표창장과 임용장 등의 사용범위를 혁신도시에 입주한 지방행정전문인 등 14개 공공기관부터 전주지역 초·중·고등학교 등 126개 학교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전주전통한지는 조선왕조실록 등의 복원화 작업을 통해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왔다"면서 "장기적으로 전주한지의 보존성과 인쇄적성 등 특성을 살려 장기보존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북한지는 기계한지에 비해 가격이 2~3배 정도 비싸고 인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보존성이 우수하고 색상이 고우며, 표면 질감이 부드럽고 두께감도 있어 탁성유의 살아있는 느낌을 그대로 받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김영재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31일>



▶쥐띠

48년생: 타인과 다투거나 마음상할 일이 생기기 미리 주의하라.
60년생: 매사에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얻는다.
72년생: 평소엔 건강하던 사람도 컨디션이 좋지 못한 운.
84년생: 처음에는 들어오나 나중에는 나가기 허망한 마음이 들기 쉬운 때.



▶소띠

49년생: 손재수가 따른다.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61년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운이니 잠시의 시간도 아끼어 분주히 움직여라.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세워 움직여라.
85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이 있는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정식으로 추진하라.
6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4년생: 지나친 욕심은 재난을 불러오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라.
86년생: 어려워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운.



▶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구설수와 시비가 따른다.
63년생: 정신적으로 뚜렷하고 맑지 않으니 중요한 사항이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타인의 조언을 구하라.
75년생: 매사 물과 마음을 겸허히 하고 인성시켜 대처할 것.
87년생: 다른 사람과의 시비구설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용띠

5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손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76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니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88년생: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천천히 전진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관계에서 한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
65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먼저 베푸는 것도 좋은 방법.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지출이 생긴다.
7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지나 큰 소망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빛을 밝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말띠

54년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신경 써라.
66년생: 식욕이 있는 운이니 모임이나 식사약속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8년생: 매사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다.
90년생: 뒷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니 주저하지 말고 결행하라.



▶양띠

55년생: 금전적으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운.
67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타인과 어울리기 보다는 고즈넉함을 즐기는 것이 좋겠다.
79년생: 금전운은 좋지 않다.
91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니 긍정적으로 진행하라.



▶원숭이띠

56년생: 인덕이 따르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68년생: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80년생: 지나친 의욕은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
92년생: 자신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닭띠

57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는 운으로 다른 사람과 얽히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투자나 투기는 삼가라.
81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니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할 것.
93년생: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



▶개띠

46년생: 태양이 밝게 비추니 의기양양한 운이다.
58년생: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될 수 있는 운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라.
70년생: 인덕이 따르고 식욕이 들어온다.
8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기권지계통의 질환을 조심하라.



▶돼지띠

47년생: 구설수 시비가 발생하니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독자독행을 삼가라.
59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투자나 투기는 삼가라.
71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83년생: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립은 피하라.